

입문

에세이

기타

삶과 사회, 실재에 대한 문제인식

■길을 찾아서/ 최민자 지음

저자는 "삶을 건너기 위해서는 나뭇가지가 필요하나, 언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배를 버려야 한다. 그런 깨달음은 원효대사는 손가락에 의지해 손가락을 버린 달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안설(圓說)에 의지해 언어가 끊어진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서문에서 적고 있다.



존재와 비존재, 주체와 객체, 사유와 실재의 이분법을 깨기란 쉽지 않다. 그것만이 인류구원의 외식(外識)이 생명수임을 말한다. 기형은 같기도 하고 수필 같기도 하다. 기국 유학시절과 중국 풍자를 돌아다녀 보고 느꼈던 것들에 대한 생각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써내려 갔다. 삶과 사회의 실재와 유리된 위험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드러나 있다. **까지 8,000원 (02)735-8998**

깨달음으로 가는 진솔한 과정

■그냥 갈 수 없는 길/ 이도원 지음

"버릇처럼 절간을 찾아 책을 보는 아내를 보고 불교를 알고 싶었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신앙생활을 심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불교를 접한 나는 진리 앞에 합당하게 되었고, 경전과 여러 선지식을 통해 자연과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



지자와 불교가 이미 한 몸처럼 아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를 만나면서부터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 펼쳐 보이고 있는 자전적 구도기. 불교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불교의 진리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써내려 갔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마지막 교훈. **불광출판부 7,500원 (02)420-3200**

詩心으로 부처님 닮아가기

■남자의 노래/ 정학스님 지음

시심이 곧 불심이라는 말이 있다. 맑고 고요한 명상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깨달는 일이다. 자기 마음을 정화하고 심신을 갈고 닦는다는 시만한 것도 없다. 정학스님은 시를 짓는 일을 인간 본연의 자세로 마음상을 갈고 닦는 일이라고, 수행자로서 깨달음의 길을 건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한다. 스님의 말대로 이 시집에는 사람의 생애가 배어 있고, 수행자의 고뇌가 서려있다. 먼 산사에 앉아서도 고요할 뉘인 굴복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어머니가 짓는 저녁밥 언기와 등불에서 푸는 구수한 송송고 발명배가 들린 공간다. 모두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리라. **통인 5,000원 (02)365-6368**



인도여행에서 본 부처

■깨달은 자의 죽음/ 안동권 지음

"죽다는 죽었다. 아무런 군더더기 없었다. 붓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죽으면서 말 낱 및 다시 살아날 것이라 하는 파리와 이슬의 소리는 하지 않았다." 가톨릭대학을 다녔던 저자는 대학 시절 잠시 떠난 인도여행에서 불교와 부처님을 만났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인도를 탐닉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눈에 비친 인도와 불교의 모습을 담은 인도 여행기, 깨달음의 땅 부드거에서 열반의 땅 푸리나거까지 인도 최대 불교성지를 여행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죽는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맞닥뜨린 붓다는 정말 위대한 스승임이 틀림없었다"는 것이다. 인도 여행 가이드북으로도 매력적이다. **문원 7,000원 (02)464-3101**



선지식의 일침은 용기와 희망

■산승의 향기/ 이학중 지음

청정한 삶,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불교의 정신, 오직 한 길로 정진하는 고집스런 삶,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무한한 애정 등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신적 가치들이다. <산승의 향기>는 서용스님을 비롯해 월하·월산·승찬·원담스님 등 25인 큰스님들의 삶에서 바로 그런 가치들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출가와 수행과정, 후학들과 대중들에게 주는 격려와 재촉, 그리고 사회문제에 대한 일침은 스님들의 사람과 사화에 대한 애정을 뽐낼 수 있게 한다.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책. 법보신문 이학중 기자가 2년여간 큰스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취재해 신문에 연재했던 것을 묶었다. **운주사 7,000원 (02)720-9372**



불심의 자성으로 보살심을 다하자

■승려의 삶과 보살심/ 달마스님 지음

청정한 스님의 삶과 불심의 자성으로 보살심을 다하는 우주의 세계관과 불교의 사생관을 정곡시켜 자정하는 연법과 율법에 우주속에 은빛이 비일출을 착나라하게 그런 필사이면 서도 연계를 구상하여 우주의 공전과 자전의 순리로 천지의 캐리커와 아인슈타를 느끼게 하는 상사이다. 본색의 수이공은 안동시의 달마사 전입기공으로 쓰여져므로 불자의 많은 생관이 있기를 권장한다. **총 19권 190,000원 (051)531-2682**
日本 大坂市 生野區 本北生 4-7-3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면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청소년 눈높이 불교 입문서

■뚝뚝 불교를 두드려보자/윤원철 외 지음
아주 쉽고 단순한 주제를 택해 청소년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킨 후, 자연스럽게 그들이 불교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너무 쉽고 단순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10가지 질문에 대해 부처님과 불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배워보는 '모마성자들의 궁금증'편과 불교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를 통해 그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진실한 모습을 살펴보는 '생각하는 이야기'편으로 전개된다. 또 '쉬어가는 페이지'코너는 불교에서 가르쳐 주는 삶의 방식들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재미있고 쉬운 내용이라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불교가 눈에 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시공사 7,000원 (02)588-0831**



불교에 대한 구체적 이해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권영한 지음
불교를 쉽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교리보다는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물과 불상, 그림 등 절의 모든 것을 컬러 화보와 함께 꼭 알아야 할 부분만 명쾌히 설명한 것이 이 책의 장점. 3백50여장의 사진과 30장곡의 그림 그리고 18개의 도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 사찰을 직접 찾아다니며 연구기에 현장감도 생생히 전달된다.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져 가고 있는 요즘 한국인의 마음과 한국의 열을 새기고 있는 사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곧 우리 자신에 대한 자각이자 또 다른 창조와 삶을 여는 힘.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서정적인 분위기까지 풍군 문체가 편안함을 더해준다. **전원문화사 15,000원 (02)704-1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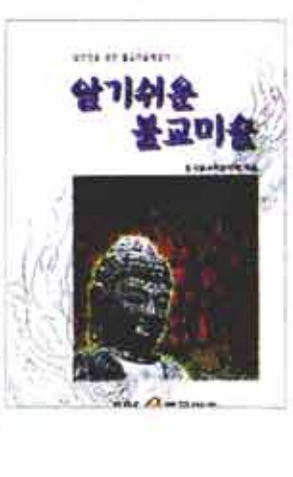
지혜의 실천 '반야경'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반야경/해탈스님 지음
반야경이란 단 한 개의 경전이 아니라 동일한 계층에 속하는 수많은 경전들의 총칭이다. 이를 수많은 대부(大部)의 반야경을 중에서 가장 일찍 성립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팔천송 반야경>이다. 이 책은 <팔천송 반야경>의 한글 번역이라는 점 외에도 독창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 특징. 특히 <팔천송 반야경>의 정수로 꼽히는 제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참된 지혜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보살·마하살·대승·공의 의미 등에 접근했다. 또 불생(不生)의 의미, 반야(바라밀)의 무한성 등에 관한 문제까지 탐구하고, 반야(바라밀)이 차지하는 중요한 의미에 관해 설명되어 있다. **출판시대 6,500원 (02)3443-4307**



알기 쉬운 불교미술로의 여행

■알기쉬운 불교미술/동국불교미술인회 엮음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1600여 년 그와 더불어 불교미술도 장구한 역사를 이어 왔으며, 우리 나라 전통 미술의 근간이 되어 왔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서 널리 조성되고 봉안되어 오늘날에도 우리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교리에 해박한 불자들이라도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그래서 현재 활동중인 불교미술 작가들로 구성된 '동국불교미술인회' 회원들이 불교미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일반인들의 불교미술에 대한 쉽고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 책을 펴냈다. 사원과 불상, 불화의 의미, 법당과 부처님, 탱, 석조물, 법구 등에 대해 주요사찰과 국보급 문화재를 일삼, 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였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도면을 제시했으며, 명호도 알기 쉽게 표현했다. 다양한 불교미술품들의 고리적 배경과 조형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쉽게 구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불서출판 운주사 값 9,000원 (02)720-9372**



존재의 빛을 보여준 달마대사

■달마대사의 선화(禪話)/라즈니쉬 지음
"그는 사람이기보다는 사자 같았다. 그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으르렁거렸다. 그에게는 고파마 붓다와 같은 우아함이 없었다. 그는 거칠게 날뛰었다. 그 점이 바로 그의 아름다움이다." 라즈니쉬는 달마대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표현방법은 다르지만 달마대사의 메시지는 붓다와 같다고 말한다. 이 책은 달마대사와 그 제자와의 산문담. 질문자는 길을 찾기 위해 자신이 들고 있는 횡포에 달마대사가 기쁨을 부여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기쁨을 부여 주기는 커녕 오히려 배를 잡는 웃음소리로 하여 횡포에 찬물을 끼얹었다. 달마대사가 가르키는 것은 오직 내면에서 떠오르는 존재의 빛. **관음출판사 5,000원 (02)720-8434**



금주의 추천도서

'한용운' - 詩心으로 승화된 구도적 자세

■한용운시전집/만해사상실천선양회 엮음

남아가 가는 곳은 어디나 고향인 것을/그 밭 사람 객수 속에 길이 갈렸나/한마디 버럭 질러 삼천세계 뒤흔드니/눈 속에 점점 이 복사꽃 붉게 지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오도송이다. 스님의 시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스님보다는 시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유, 그것은 스님의 지조있는 사

상과 부처님을 향한 구도적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남의 침묵에 수룩된 88편 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18편의 시와 시조 32편, 동시 3편, 한문으로 된 산시 138편을 한 권에 담았다. 만해시의 결정판. **장승 10,000원 (02)730-2500**



설기문 교수의 <최면·전생 체험> 특별워크샵

前生은 과연 있는가??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1. <집단 최면·전생 체험> 대공개 워크샵 ●일시 9월 19일(토) 오후 2시~7시 ●장기비 2만5천원
최면·전생 공인치료사인 설기문 박사의 집단 최면유도에 따라 5시간의 과정속에서 전생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2. <최면·전생> 체험교실 - 12시간 특별워크샵 ●일시 9월 20일(일) 오전 9시~오후 9시 ●장기비: 8만원
●19일(토) 특별워크샵 참가자에 한함
음악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개인별 상담 포함.

■주최: 정신세계원 서울시 종로구 은평동 은평문화센터 502호 ☎(02)747-7033 (전월 3호선 안국역 4번출구에서 100m)